

3. 본 연구의 결과 밝혀내지 못한 지식인지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파악에 있어서 더욱 넓고 깊은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양호교사의 역할 모형에 관한 연구

보건학논집 제38호, 1985.

김 화 중

본 연구는 양호교사의 역할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에 의한 역할 및 기능을 현직 양호교사들이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1984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양호교사 지도자들 5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양호교사의 역할은 학교보건 일선관리자와 보건교육자 역할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보건발전을 위하여 양호교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 학교보건 일선 관리자의 역할은 학교보건 상태 파악·기획·집행·평가하는 기능,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기능, 보건교육 기능, 환경보건관리 기능으로 구분되며 이들 기능은 양호실 운영, 방문활동, 의뢰활동, 집단지도활동, 면접활동, 상담활동, 정보매체활동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보건교육자 역할은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보건교과목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한다.

4. 본 연구조사 대상양호교사의 80% 이상이 학교보건사업상태파악·계획·집행·평가 기능과 학교간호수단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검진과 건강문제관리기능은 조사대상 양호교사의 50% 이내에서 수행능력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보건교육과 환경보건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양호교사의 80% 이상이 이의 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 보건교육자 역할은 양호교사의 82%가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근무경력 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양호교사의 역할 및 기능이 정부차원에서 확정되어 양호교사의 직무규정이 만들어지고 이의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이 요청된다고 본다.

## 일부 여자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 노혜숙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져감에 따라 학교 정신건강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 사업을 전개시키는 첫 단계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처하는 적응행동 및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적응능력과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내 일개 여자 중학교의 학생 3,250명 중 각 학년 4학급씩을 층화표출한 743명이었으며 1985년 4월 1일부터 4월 6일에 걸쳐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최정훈의 지각향상 검사도구 중 인지적 자아 20문항과 Roscnberg의 평가적 자아 10문항, 그리고 Bell의 적응행동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한 것과 본 연구자가 개발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로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평점,  $X^2$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3.1%, 2학년 33.8%, 3학년 33.1%로 고른 분포였으며, 종교를 가진 학생은 69.3%로 없는 사람보다 많았으며,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상태는 93.1%가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이었다. 성적은 중이 66.2%로 많았으며, 부모생존 여부에서는 양친생존 89.5%, 편부 2.2%, 편모 7.8%, 양친부재 0.5%로 대부분 학생의 부모가 생존해 있었고 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7.6%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이 80.9%, 하 15.2%, 상 3.9%로 상류가정이 적었으며, 출생순위는 맏이 30.4%, 가운데 39.6%, 막내 28.8%, 외동딸 1.2%이었다.

이를 학년별로 비교하면 고학년에서 유의하게 성적이 하인 학생이 많아지며(22.8%), 경제상태 하의 비율이 증가하였다(21.1%).

### (2)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행동 양상

각 측정치는 1점에서 5점까지의 평균점수를 보일 수 있는데 자아개념은 1학년이 3.52, 2학년 3.47, 3학년 3.37로 1학년이 가장 자아를 배정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하였다

( $F = 5.14, p < .01$ ).

스트레스는 1학년이 2.49, 2학년 2.50, 3학년 2.53으로 3학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 $F = 3.75, p < .05$ ), 스트레스 문제의 심각도는 공부 및 성적, 친구, 외모, 휴식 부족, 학교생활, 성격, 가정경제 및 분위기, 건강, 이성, 종교활동 문제의 순으로 높았다.

적응행동에서는 효율적인 장기적 적응행동을(평균 2.81) 비효율적인 단기적 적응행동(평균 2.47)보다 많이 행하였는데 이를 학년별로 비교하면 장기적 적응행동은 1학년 2.92, 2학년 2.77, 3학년 2.74이었고 단기적 적응행동은 1학년 2.56, 2학년 2.36, 3학년 2.49이어서 1학년이 장기적, 단기적 적응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 (3) 일반적 특성과 자아개념,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과의 관계

자아개념은 학년, 건강상태, 성적, 부모생존 여부, 부의 학력, 경제상태와 관계가 있었는데 1학년, 건강상태 상, 성적 상, 양친 생존, 대학교 이상의 부의 학력 경제상태 상에서 자아개념이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정도는 3학년, 건강상태 하, 성적 하, 부의 학력이 국민학교 이하, 경제상태 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적응행동과의 관계에서는 1학년이 단기적, 장기적 적응행동 방법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성적과 경제상태가 상인 학생이 장기적 적응방법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 (4)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간의 상관관계

자아개념은 장기적 적응행동과 관계가 있었고( $\gamma = .2482, p < .01$ ), 스트레스는 단기적 적응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gamma = .2895, p < .01$ ). 또한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장기적 적응방법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으며( $t = -4.99, p < .001$ ),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단기적 적응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t = -7.51, p < .001$ ).

이러한 결과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면,

가설 1.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장기적 적응행동을 할 것이다.”는  $\gamma = .2482, p < .01$ 이로 채택되었으며,

가설 2.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단기적 적응행동을 할 것이다.”는  $\gamma = .2895, p < .01$  채택되었다.

따라서 학교보건 담당자는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을 고찰하고 사용해서 그들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의 세 변수간의 상관도는 낮은 편이므로 그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